

## 2040 탄소중립과 “RE100 강원”

정윤희·양 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커져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

최근 터키와 그리스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과 재산 피해도 크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2003년 탄소배출량을 측정한 이래로 가장 많은 3억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다. 대형 산불과 함께 지난달 독일과 서유럽에서 발생한 100년 만의 폭우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대응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19년 11월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정될 기미 없이 오히려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인류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적극적 방역을 위한 조치로 제한등교·재택근무·사적 모임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기에 우리는 탄소중립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탄소중립과 강원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 문명은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필연적으로 탄소배출을 수밖에 왔다. 이에 탄소중립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하며, 현재를 살고 있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원도는 금년 2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4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많은 산림을 보유한 청정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보다 10년 빨리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RE100 강원’의 브랜드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경영(ESG), RE100,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등 전사회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작된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캠페인이다. ‘RE100’은 2014년 유럽의 비영리단체에서 시작되어 글로벌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되고 있다. 2026년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본격 도입할 예정으로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수출주도형 사업은 ‘RE100’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관광업 중심의 강원도 입장에서는 다소 먼나라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너와 나를 가릴 수 없듯이 ‘RE100’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스마트그린·‘RE100’산단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는 ‘RE100 산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RE100 강원’을 이뤄보면 어떨까?

“강원도는 ‘RE100 산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RE100 강원’을 이뤄보면 어떨까? 강원도는 ‘RE100 강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RE100 강원’은 강원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제품, 그리고 관광상품 등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물 및 활동으로 정의한다.

강원도의 전력자급률은 174.8%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또한, 1차 에너지의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5.4%로 가장 높다. 다시 말해 강원도는 ‘RE100 강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강원도에서 필요하지 않은 전력을 화력발전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탄소는 강원도에서 배출되는데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삼척과 강릉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RE100 강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E100 강원’은 기존에 기업 단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지자체에서 전면 도입함으로써 ‘청정 강원’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가 감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평화지역과 ‘RE100 강원’

강원도 평화지역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의한 낙후된 지역경제와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RE100 강원’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화지역을 ‘RE100 강원’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자. 인구가 적고 산업이 취약한 지역의 약점은 지역 단위 탄소중립 실현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풍부한 산림과 군(軍) 유휴지 등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주요 공간으로 활용하여 평화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RE100 강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지역으로 조성하자.

둘째,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평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먼저 'RE100 농산물'로 인증받는다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농산물 수출 및 유통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철원과 화천의 파프리카, 양구의 아스파라거스, 인제·고성의 황태 등 강원 의 농산물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평화지역의 고품질 농산물의 경쟁력을 한 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화지역을 남북 전력협력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활용하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 가속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자가소비 비중은 매우 낮고 이를 확대할 유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평화지역에서 지역단위 혹은 마을단위의 개방형·독립형 전력플랫폼을 시범 운영해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북강원도, 나아가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한 북한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력협력을 위한 기반으로도 의미가 있다. 한반도통합전력망(UKPS) 구축을 평화지역이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UNIFICATION-NORTHERN RESEARCH CENTER

발행번호

No. 21-12

발행일

2021년 8월 25일

통일·북방정책포커스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포커스에서는 통일·북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일·북방연구센터: ljh527@rig.re.kr/033-250-2985